육아정책Brief

통권 제30호 | 발행인:이영 | 발행일:2014년 10월 10일 | 발행처:육아정책연구소

10 October

공공형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기준 강화와 지원 확대 필요

Ⅰ. 공공형어린이집이란?

- 민간 중심의 어린이집 공급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신규설치가 매우 어려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가 도입됨. 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 이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3년 기준, 전국 1,462개소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 ▶ 전체 어린이집의 3.3%이며 가정어린이집의 2.1%. 민간어린이집의 6.5% 정도임.
 - ▶ 총 1,462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은 모두 82,466명이고 현원은 72,018명임. 이는 전체 보육 정원의 4.6%, 현원의 4.8%에 해당함.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약 35%임.
 - ▶ 공공형어린이집의 전체 교사 수는 8.849명임.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재정 특성 등을 살펴보고, 제도가 바람직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 배점 조정, 맞벌이 가정 자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점수 산정 방식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함

정부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

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 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

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형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함

- 제도 도입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신청 제외 조건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 ▶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 배점을 조정하고 점수 부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90점을 신청 기준 하한선으로 설정하였음.
 - ▶ 대표자나 원장의 복수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기타 운영비 비율도 15%로 상한선을 둠.
 - ▶ 정부의 여성고용 70% 달성 목표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을 반영하여 2014년에 는 보육아동 중 맞벌이 가정 자녀 비율을 새로운 가점으로 추가함.
 - ▶ 교사 급여 수준을 선정 기준에 포함함.



- ▶ 취약보육은 종류별로 각 2점씩 최대 4개까지 기본배점으로 배정함.
- 그러나 가감점 제도로 인하여 필수 항목이 기준에 미달되는 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비록 소수이지만 부적절한 수준이나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존재함. 2014년 기준으로 기본점수 100점 이외에 가점 총 20점이고 감점 총 11점을 합산하여 85점 이상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대상이 됨.
 -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전체 평균은 94.4점, 90점 미만 공공형어린이집은 6.8% 정도임.
 - ▶ 1급 보육교사가 없는 공공형어린이집이 2% 정도임. 보육교사 수 대비 1급 보육교사 비율은 평균 63%이고. 보육교사가 모두 1급인 어린이집 비율은 17.7%임.
 - ▶ 2013년 말까지 선정·유지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건물 소유형태는 자가가 83,3%이고, 13,2% 는 월세. 3,5%는 전세임. 자가인 어린이집의 경우 융자금 수준에 대한 반영 정도는 낮음.
 -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공공형어린이집이 15% 정도임.
- 공공형어린이집의 약 37%가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며 2.8%가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방과후 보육과 24시간 보육 비율이 각각 1.5%, 0.4%로, 어린이집 전체와 비교하여 장애아 통합, 방과후 통합 및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비율이 높음.

Ⅲ. 공공형어린이집 재정지원과 운영의 적절성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정액을 차등 지원하는데, 2013년 7월 이전까지는 여섯 구간으로, 이후에는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차등 지원함.

〈표 1〉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월 지원액

단위: 만원

정원	20 이하	21~35	36~49	50~62	63~76	77~86	87~97	98~111	112~123	124 이상
2013년 7월부터	116	253	268	445	460	565	580	829	844	875
2013년 7월 이전	96	248	248	440	440	560	560	824	824	87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리에 소요되는 국고 지원 예산은 2014년에 총 375억원 규모임. 대부분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이고. 이외에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은 약 10억원이 책정됨.

〈표 2〉 공공형어린이집 국고 지원 예산액

단위: 백만원

정원	2011	2012	2013	2014
전체	7,984	16,942	30,049(33,049)	38,528
지원	7,984	16,542	29,549(32,519)	37,532
홍보 및 사후관리	-	400	500	996

주: 국고 지원율 40~60%임. ()는 추경을 포함한 액수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사업 개요.

- 구간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수입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입에 비하여 낮음.
 - ▶ 규모별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수입의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정원 충족률 100%에서 20인 이하는 72.7%이고 99인이 94.3%로 가장 높음. 소규모일수록 비율이 낮은 구조임.

공공형어린이집의 1급 보육 교사 비율은 평균 63%이고 보육교사가 모두 1급인 어 린이집 비율은 17.7%로 나 타남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일정한 구간에서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 내 정원 최고 어린이집 운영비 수입의 국공립 대비비율이 최저 정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 정원충족률이 낮아지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수입의 국공립 대비 비율은 더 낮아짐.
- ▶ 정원을 기준으로 나눈 일정한 구간에서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 내 정원 최고 어린이집 운영비 수입의 국공립 대비 비율이 최저 정원에 비해 낮음.
- ▶ 정원 1인 차이로 어린이집 운영비 수입의 국공립 대비 비율이 크게 달라짐.

〈표 3〉 어린이집 규모와 정원충족률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입 대비 비율

단위: %

규모	구간 내	최저 정원	구간 내 최고 정원		
	정원 100%	정원 80%	정원 100%	정원 80%	
20인 이하			72.7	74.5	
21~35인	73.6	67.0	76.2	70.0	
36~49인	81.1	70.8	76.8	70.2	
50~62인	87.2	83.0	84.7	79.7	
63~76인	85.2	80.2	85.9	81.6	
77~86인	88.3	71.9	87.2	82.5	
87~97인	89.1	85.5	88.8	84.7	
98~111인	94.3	91.2	92.0	88.1	
112~123인	91.3	87.1	90.3	85.8	
138인	90.5	86.3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부모의 비용 부담은 일반 어린이집과 근소한 차이를 보임.
 -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총 세입이나 세출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공공형여부별로 별 차이가 나지 않음.
 - ▶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은 공공형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세입 비율이 낮았으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이 일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세입 비율이 오히려 높았음.
- 공공형어린이집의 건물 소유형태별로는 월세 어린이집의 세출 구조가 가장 취약하였음.
 - ▶ 총 세출 대비 기타 필요경비 세출 비율은 자가 어린이집이 3% 정도로 월세 어린이집 4% 이 상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또한 세출 시 금액은 자가 23,200원, 전세 28,300원, 월세 30,000원의 순이었음.
 - ▶ 특별활동비는 월세 어린이집이 가장 높고. 기타 운영비 역시 월세가 전세보다 많음.
-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현재 자율공부모임, 맞춤형 컨설팅, 체계적 운영 지원으로 추진함. 사후관리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Ⅳ. 정책 제언

자기 자본 비율 100%인 자가 건물로 한정, 선정 기준점수 산정 체계 조정, 평가인증하한 점수의 상향조정등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강화함

-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수단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의 적정화와 더불어 선정 기준을 높이고 운영 기준과 사후 질 관리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강화
 - ▶ 신청 기준으로 자가 건물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 자기자본 비율을 포함. 장기적으로 는 자기자본 비율 100% 자가 건물로 한정하여,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과 대표자 변경이 빈번한 어린이집 등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육아정책 Brief

- ▶ 선정 기준 점수 배점에서 가감점 항목은 100점 점수 체계에 넣을 것을 건의함. 가점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본적인 항목의 점수가 매우 낮아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
- ▶ 평가인증 하한 점수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조정함.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이 92점 이 상임을 고려할 때, 하한선을 90점으로 두고 질 높은 어린이집 선정을 자부하는 것은 부적절 해 보임.
- ▶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시 신규 신청자와 차별 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 제도 도입이후 선정 기준이 강화된 의미를 살려야 할 것임.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교사 수나 반 당 지원으로 개선 하고, 지원금 용도에 대한 기준 제시도 필요함

- 지원 기준을 점차 개선
 - ▶ 운영비 지원 체계를 구간별 운영비에서 교사 수나 반 당 지원으로 점차 개선. 지원 조건을 교사 인건비 일정 수준 이상과 연동시키고 있으면서 교사 1인 당 아동 수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 지원 수준이 개선될 경우 운영지원금의 사용처 및 용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사 수당 등 인건비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연차별 자체보고서 작성 등 자체 점검을 통해 선정 기 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클린카드 사용 등 재정 운 영 투명성 확보 조치를 강

화해야 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수준 강화와 더불어 운영 기준 강화
 - ▶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취약계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책 무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민간 인프라와 차별화함.
 -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선정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관리함. 1급 교사 비율, 취약보육 실시, 보육료 수입 대비 기타 운영비 지출 비중 등은 선정 이후에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필요한 항목이므로, 연차별로 자체보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 클린카드 사용, 1시설 1계좌 사용,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함.
 - ▶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일정 수준의 현원 유지도 필요함.

• 사후관리로 교육과 컨설팅 강화

- ▶ 재무회계와 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운영 컨설팅과 더불어 보육과정 컨설팅도 비중 있게 실시함.
- ▶ 특별활동적정관리지침 등 정부가 제시하는 제반 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함.
- ▶ 각종 컨설팅이나 교육 대상을 원장에서 교사로 확대하여 전체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함.
- ▶ 교육 대상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함.
- ▶ 공공형어린이집의 자부심 독려를 통한 자율 및 상호 컨설팅 등 자체적 질 관리를 지원함.

서문희 명예연구위원 suhmh@kicce.re.kr

사후관리를 위해 투명운영 과 더불어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강화, 정부 기준 준 수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교육, 컨설팅과 교육 대상 확대를 통한 전체 교직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